

영남대, 비즐리 유엔 WFP 사무총장에 명예박사 학위



최외출 영남대 총장(오른쪽)이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에게 명예 국제개발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영남대가 지난 7월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에게 명예 국제개발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식량 원조 및 식량 안보 환경을 개선해 세계 빈곤 퇴치와 가아 종식에 이바지한 공로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1년 설립된 WFP는 식량 원조를 통해 지구촌 가아 퇴치를 목표로 하는 세계 최대 인도적 지원기구다. 이탈리아 로마 본부를 거점으로 세계 120개 국가에 사무소를 두고 매년 80여 개국 1억 명이 넘는 빈곤층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과 비정부기구, 연구기관과 힘을 모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하고 배고픈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을 찾는 전략적 협력의 계기가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외출 영남대 총장은 "새마을 제로 형거 커뮤니티 프로젝트가 큰 성과를 거두며 개도국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면서 "영남대 인재들이 WFP와 함께 더 나은 지구촌을 만드는 글로벌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으로 영남대는 새마을 지역개발 모델을 통한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빈곤 극복과 가아 종식 사업을 WFP와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

WFP는 지난 2011~2019년 절대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새마을 개발 원리를 적용한 '새마을 제로 형거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탄자니아, 르완다, 니칼, 방글라데시 등 개도국에서 추진해 큰 성과를 거뒀다. 이 공로로 202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수여식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반기문 이사장은 "WFP는 한국의 새마을운동 정신을 담은 '새마을 제로 형거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새마을정신을 세계로 확장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영남대와 WFP가



NEW SPIRIT!
NEW START!

민족과 함께한 인류와 나누는 75

민족과 함께한 영남대학교

이제는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수시모집

인터넷 원서 접수 2022. 9. 13.(화) 09:00 ~ 9. 17.(토) 18:00

입학팀 대표 053.810.1086 | 학생부교과전형 053.810.1082~1085 | 학생부종합전형 053.810.1991~1997

영남대학교 입학안내 enter.yu.ac.kr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www.uwayapply.com(1588-8988)